

환경

광주 하늘 점차 맑아지는데

실내 공기는 갈수록 오염

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세균 등 검출량 기준치 초과 어린이집·대형 마트 늘어

#5살의 자녀를 광산구 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조모(34·여)씨는 감기를 달고 사는 딸아이가 언제나 걱정이다. 딸이 기침을 할 때면 별 수 없이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조씨는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지만 딱히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할 뿐이다.

#매주 주말이면 인근의 대형 마트를 찾는 박모(45)씨는 마트 안에서 재채기를 참을 수 없다. 특히 평소 비염이 있던 박씨는 겨울철 난방 시에는 집에 돌아온 뒤까지 콧물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광주의 대기질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은 단속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마트,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유지기준 및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공기정화,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5

개 항목에 대한 지역 내 7곳 측정소 측정 결과 대부분의 항목의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산화황의 경우 지난해 두암동·송정동·충곡동·주월동 측정소에서 0.003~0.004ppm이 검출돼 지난 2007년에 비해 0.001ppm이 감소했으며, 이산화질소는 지난해 농성동측정소 등에서 0.013~0.025ppm이 검출, 지난 2007년의 0.014~0.027ppm보다 줄어 들었다.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도 감소세였으며, 다만 오존만은 지난 2007년보다 검출량이 다소 늘거나 정체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대형 마트, 병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는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54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서구의 A병원, 북구의 B미술관 등 2곳이 건축자재로부터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량이 기준치(100ug/m)를 초과해 적발됐으나 2010년에는 66곳 중 6곳에서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등이 기준치를 넘어서었다.

북구와 광산구의 C와 D어린이집은 공기 중 세균함량을 의미하는 총부유세균 기준치(800CFU/m)와 이산화탄소 기준치(1000ppm)를 각각 초과했다.

북구의 C어린이집은 총부유세균이 943CFU/m에 이산화탄소는 1178.6ppm, 광산구의 D어린이집은 1188.4CFU/m에 1724.9ppm이 나왔다. 각각 북구와 광산구의 대형 마트는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160.2ug/m, 112.9ug/m로 기준치를 넘어섰고, 서구의 의료기관 2곳은 각각 이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가 1177.3ppm, 127.6ug/m가 검출돼 개선명령과 함께 50만원에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실내 공기는 정기적인 환기와 청소, 소독 등으로 충분히 기준치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주체들이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아 나빠지는 것"이라며 "대부분 개선명령 후 측정하면 정상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 검출량이 지난 2007년에 비해 대부분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 초과검출된 대형 마트, 병원, 어린이집 6곳이 적발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장마가 끝난 뒤 맑은 광주 하늘.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R&D 예산의 3.3% 환경분야 투자

OECD 회원국 중 7번째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연구·개발(R&D) 지출은 정부 전체 R&D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2.7%에 비해서 0.6% 포인트 높은 것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7번째로

높은 수치다.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전체 R&D 관련 예산에서 환경과 관련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3.31%로 집계됐다.

뉴질랜드가 정부 R&D 관련 예산 중 13.39%를 환경 관련 R&D에 투자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캐나다(4.38%), 호주(4.11%), 스페인(4.07%), 포르투갈(3.67%), 헝가리(3.52%)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았다.

우리나라에 이어 폴란드(3.25%), 이탈리아(3.18%), 독일(3.14%), 룩셈부르크(2.92%), 슬로베니아(2.86%), 슬로바키아(2.79%) 등이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러시아는 정부 R&D 예산의 0.14%만을 환경 관련 분야에 지출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고 스위스(0.36%), 네덜란드(0.38%), 아이슬란드(0.39%), 미국(0.51%), 일본(0.98%) 등도 1%에 못 미치는 비중을 보여 환경 관련 R&D 지출에 다소 인색한 것으로 평가됐다.

OECD는 "R&D 지출 비중은 투입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녹색성장의 결과물이 아니라 녹색성장에 대한 각국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Green City, Better City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10월 11~13일 개최

(6) 교통분야

500m만 걸으면 대중교통 만나게

10년 내 도로·승강장 등 공공시설 투자 정비
청정연료 사용 등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추진

광주시는 10년 내에 거주민의 500m 내에 공공교통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존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광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51만8477대이며, 그 중에서 승용차는 40만4556대로 전체의 78.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승용차의 소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 또는 신설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승용차의 수를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처럼 예산의 상당부분을 도로 등에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인데다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는 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광주시는 지역 내 2527곳의 승강장이 있어 500m 내 1.04곳이 설치돼 있으나, 문제는 버스·오지,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상대적으로 승강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 내 신설 66곳, 이설 73곳, 보수 381곳, 정비 2102곳 등의 목표를 설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7년 내 공공교통 수단의 배출물질 50%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도 실시한다. 버스, 택시 등에 배출가스 규제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정연료 사용 및 배출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60%를 차지한 만큼 천연가스버스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등에 나선다는 것이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률은 2010년 97%로 올해 5억 원을 투입해 26대를 매입하면 보급률은 100%에 이르게 되며, 2014년까지 368억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추진한다.

1인 승용차 출퇴근 이동 비율도 2018년까지 10% 감소시킨다. '나홀로 운행 차량'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부담금 감량 반영, 시청 등 관공서 카풀 활성화 방안 추진, 민간사업장 카풀 활성화 유도 대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연령대에 따라 10대~20대 2%, 21~30대 3%, 31~50대 4%, 51세 이상 5% 등이 유력하다. 시청 내부 직원용 홈페이지(행정포탈)에 카풀코너를 개설하고 민간사업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프로그램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물 중 건물 연면적 3000㎡ 이상 주차면수 10면 이상인 건물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승용차 자율부제 운영,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보조금 지급, 시차출근,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이용, 재택근무, 환승 구간 셔틀버스 운행, 대중교통의 날 운영,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소, 경차구역 운영 등 다양한 정책도 검토중이다. 광주시는 경감프로그램 참여가 10%만 증가해도 하루 자가승용차 1만대를 감축하고 1년에 1000억원의 유틸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감으로 체험하는 환경사랑

광주시민환경연 27일·9월24일 초·중등생 대상
광주환경연합 부설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가 오는 27일과 9월24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재활용품 선별장과 황룡강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감으로 체험하고 배우는 환경사랑 녹색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자원순환 안내책자, 황룡강 생태체험 자료집 등이 제공된다. 또 봉사점수 1시간30분(환경·봉사활동 시간)이 주어진다. 신청은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전화번호 062-514-2472, 홈페이지 kwangju@kfem.or.kr)로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우리강 깨끗하게 즐기기
환경부 백서 제작 보급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적 강 이용 실천 수칙을 담은 '우리 강 깨끗하게 배배 즐기기' 백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지난 7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온 강 이용과 관련한 친환경적 아이디어를 반영해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 친수문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백서를 만화, TV 광고용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지자체와 KTX, 생태환경탐사대, 환경단체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Yoon, Hyo-gan concert
윤효간 : 작·편곡가 겸 Pianist, Accordionist
미르치과병원 과 함께하는 감동과 꿈의 윤효간 콘서트!
1,000회 공연, 삶의 가치를 선물해주는 음악과 이야기!
수십만 관객들과 소통하는 그는 사람들 삶의 롤모델!
청소년과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최고의 공연!